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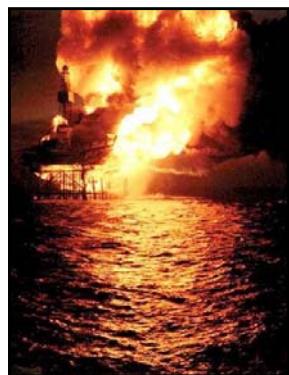
2007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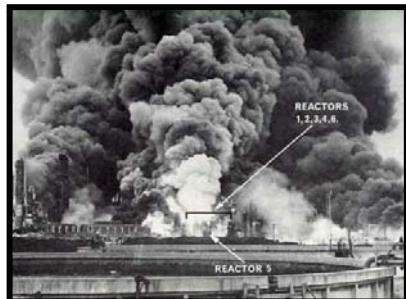
1986년 1월,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발사 도중 폭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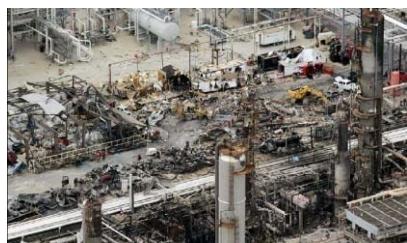
2003년 2월,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 귀환도중 폭발



1988년 7월, 파이프
알파 석유시추시설
화재폭발로 붕괴



1974년 6월, 플렉스보로, 영국
화학공장 폭발



2005년 3월, 텍사스시티,
텍사스주 정유공장 폭발

이들 사고와 복잡한 설비의 주요 파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사고조사에서 찾아낸 주요 요인은 해당 조직의 안전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문화란 대체 무엇일까요? 영국의 보건복지부에서는 "... 안전문화란 조직의 보건, 안전프로그램의 효율과 실행을 결정짓는 개인과 조직의 가치기준, 태도, 역량, 행동양식의 산물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들리지요, CCPS에서는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란 누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조직의 행동양식이다." 관리자가 훌륭한 안전문화를 수립하는 리더십을 가졌다면, 각 구성원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이번 Beacon에서는 안전문화의 핵심 사항중의 하나인 취약점에 대한 센스에 대해 살펴보고 다른 사항들은 향후에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재앙적인 사고가 흔한 일이 아니기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쉽게 믿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안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운전과도 타협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보호 시스템이나 절차가 유지되지 못하거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재앙적인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한 행위에 잠재된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

- 공장의 위험 물질이나 공정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 일어날 뻔한 사건은 무언가 잘못되어간다는 것의 암시임을 유의하십시오.
- 공정안전지침에서 소개되는 것 같은 타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귀하의 플랜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 수립된 운전절차를 준수하고 한계 내에서 항상 운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바로 관리자에게 알리십시오.
- 수립된 절차를 변경할 경우 위험평가와 정통한 전문가의 승인을 받는 정식 절차를 밟으십시오.

훌륭한 안전문화는 각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